

“불량식품·성폭력 사건없소?” 몸단 경찰

‘4대악’ 척결 실적위주 단속 부작용 영세상인까지 마구잡이... 치안 소홀

경찰이 정부의 ‘4대악(惡)’ 척결에 총력을 쏟으면서 단속 분위기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일고 있다. 경찰 총수가 성과가 없는 지휘관을 문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는가 하면, 4대악 척결을 위해 특별 승진 대상 인원을 늘리고 지방청별로 매일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등 ‘실적 경쟁’에 돌입하면서다.

경찰청이 뒤늦게 과도한 실적 경쟁을 우려, 단속 지침을 보완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 여전히 실적 쫓기에 급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경찰서는 정부의 4대악 근절 정책에 따라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과·불량식품 단속에 매달릴

뿐 아니라 매일, 주간, 월별로 홍보 실적을 보고하고 있다.

이성현 경찰청장이 지난 1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4대악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는 지휘관에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한 특진 대상자를 확대(40명→60명)하면서 지방청별, 일선 경찰서별 실적 경쟁도 치열하다.

특히 경찰 본연의 임무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품품질관리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정·불량식품 단속 분야의 경우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이 과도한 단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악의적 제조·유통사

범(월매출 500만원 이상)에 한해 단속하라는 보안 지침을 내렸음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서부경찰이 22일 발표한 ‘60억 대 불법 기능식품 제조·판매한 일당 10명 검거’ 사례의 경우 전혀 다른 4개의 개별 사건을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일당’으로 간주해 내놓는가 하면, 이미 한 차례 발표한 사례까지 덧붙이는 등 부풀린 흔적이 곳곳에 노출되고 있다.

그나마 일부 적발 사례는 경찰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월매출 500만원 이상 악의적 제조·유통 사범으로 한정된 단속 지침에도 맞지 않아 실적 쫓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주장 외에 부작용 여부를 판단할만한 감정 결과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도 실적 쫓기에 급급한 결과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지자체 특별

사범경찰에 걸취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찰서 지능팀이 불량식품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대출사기·보이스 피싱 등 본래 업무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자칫 민생 치안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일선 경찰서 한 직원은 “경찰서별, 부서별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부서가 맡고 있는 고유 업무는 뒷전이 된 지 오래”라며 “4대악 사건 대부분이 매일 일어나는 사건도 아닌데 갑자기 경쟁을 부추기니 갑갑할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실적 쫓기에 급급, 단속하기 쉬운 소규모 영세 업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자칫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포상금 노려라 ‘食파라치’ 극성

5개 구청에 불량식품 정보공개 잇단 청구

광주시 5개 구청에 최근 몇 년간 부정불량식품 단속업소 명단을 비롯, 신고 포상금 예산과 음식점 현황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줄을 잇고 있다. 구청측은 포상금을 노리는 ‘식(食)파라치’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순 속내가 있는 결과, 구청 관계자들이 밝힌 사연은 이렇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최근 일반·휴게 음식점 명단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난해 부정불량식품 단속업소 명단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김제에 거주하는 B씨도 앞서 책정된 전체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중 남은 예산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음식점 현황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이들의 정보공개청구는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한 의도라는 게 구청 측 입장이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예산이 편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무허가 업소 명단을 확보한 뒤 대조 작업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우선 무허가 업소를 표적으로 삼아 단속(?)하는 게 수월하다는 것이다.

공개된 현황을 근거로 무허가 업소임을 확인한 뒤에는 관할 구청에 연락해 포상금 신고 건수를 확인하고 신고 건수가 적은 구청에 무더기로 신고한다는 게 구청 측 예상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청구만도 5건. 일주일 평균 3~4건의 전화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술취해 행패·스토킹 안 봐준다

개정 경범죄 시행 한달 광주서 30건 적발

광주지역에서 지난달 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시행돼 한 달 동안 모두 30건이 적발됐다.

이혼한 전 부인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괴롭힌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는가 하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처벌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뒤 한 달 동안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건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동부경찰의 경우 음주소란행위로 5건을 적발한 것 외에 ▲불안감조성 5건 ▲음물투기 3건 ▲침범 2건 등 15건을 적발했다.

북부경찰은 총 46개 항목의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중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 이른바 스토킹 혐의로 40대 남성 10명을 불잡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46)씨는 지난 17일 이혼한 전 부인 A씨(여·45) 아파트를 계속 찾아가다 만나자며 소란을 피우고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혐의다.

당시 A씨의 신고로 출동했던 두 안과소 관계자는 “폭력 등의 혐의가 없어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 입건하고 8만원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말했다.

‘지속적 괴롭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명시적 거절 의사에도 3회 이상에 걸쳐 요구가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북부경찰은 또 ▲무임승차 1건 ▲관공서 주취소란 2건 등 4건을 적발, 즉시에 회부하거나 입건했다.

서부경찰은 한 달 동안 모두 5건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김모(24)씨의 경우 지난 5일 새벽 3시께 만취한 채 상무지구대에 들어가 “휴대폰을 찾아와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불잡혔다. 이외 ▲노상방뇨 1건 ▲무임승차 1건 ▲음주소란 1건을 각각 적발했다.

또 남부경찰은 한 달 ▲음주소란 2건 ▲무임승차 1건 등 3건, 광산 경찰도 3건(관공서주취소란 2건, 쓰레기 투기 1건)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관련 조항에 따라 3~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이 기간 4건의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를 적용, 형사 입건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진단 대비 이렇게
지난 21일 신안 흑산도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고 중국 쓰촨성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북구는 22일 광주시 북구 중흥어린이집에서 원생 50명을 대상으로 ‘지진 대비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들이 지진발생을 가정해 테이블 밑에 안전하게 숨고 있다.

“국정원 의혹수사” 필요시 진상조사”

경찰청장 “권은희 과장 잘못때 감찰”... “할 일 했을 뿐”

이성현 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서 경찰 뒷선이 수사팀에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경찰 내부 폭로(광주일보 22일자 6면)와 관련,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경찰청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권은희 수사과장 발언의 배경과 관계없이 권 과장이 주장

하는 내용과 관련해 필요하면 진상조사를 해볼 생각”이라며 “경찰청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상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권 과장의 주장이 잘못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권 과장에 대한 감찰을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고위층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지속적으로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최근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은희 과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과장은 이날 오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당시 수사팀을 이끌고 언론대응을 했던 나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선 흠쳐 팔아 도박 탕진

진도경찰은 삼승적으로 농업용 전선을 절단기로 잘라 관 협의(특수절도)로 윤모(50·강진군)씨를 22일 검거했다.

윤씨는 지난 2월 26일 진도군 인회면 연동리 농로 전선주에 올라가 준비한 안전띠와 절단기를 이용, 전선 2184m(시가 580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4차례 걸쳐 4100만원어치를 훔쳐 고물상에 판매했다. 윤씨는 이 돈을 경마장 등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진도=박정렬기자 hyark@

음주 뺑소니범 순찰 경찰에 들미

○음주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경찰에게 들미.

○2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49)씨는 지난 21일 밤 9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진 양유교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김모(50)씨의 K5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갔다.

○도주하던 정씨는 현장에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목격한 경찰의 추격에도 불참했는데 조사 결과, 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에 달한 것으로 확인.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태양광 R.P.S.사업부

“햇빛 재테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4.5배 이상 기대)

-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자부담 550 ~680만원**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cmh할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주)셈에너지 그린파워 광주총판 TEL.1577-8905 019-624-2371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100세 시대를 위한 행복찬 교육!
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창의적인 인성을 키우는 교육!!

모집기간 ~ 2013. 4. 30(화)

개강일 2013. 5. 2(목) ~ *스포츠마사지1급, 진로코칭 과정은 별도 개강.

접수 및 등록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원서부착용)

문의처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062)605-1112, 1063, 1023

과명	강사명	교육시간	주	교육연월	수강료(원)	비고
음악심리치료 전문가과정(초급)	이미경	목 19:00~22:00	15	20	300,000	-
CEO인간경영 리더십	김기현	목 18:30~22:00	6	30	300,000	인간경영 지도사 2급
미인대칭 평생행복강사	김기현	목 15:00~18:00	6	30	300,000	행복강사2급
다문화상담사	김성구	목 19:00~22:00	10	30	200,000	다문화상담사/다문화교육사 2급 동시 취득
자기주도학습	정승안	금 14:00~16:00	15	30	150,000	자기주도 학습지도사
정서코칭 및 학교폭력예방상담사	김현진 외2명	화 19:00~22:00	15	30	250,000	정서코칭/학교폭력예방상담사
뉴스포츠태권도 (글로벌퍼스 학생)	신은호	화·수·목 10:00~11:00 14:00~15:00	15	20	200,000	태권도 단종취득
진로코칭	박성균	월-금 9:00~18:00	1	30	300,000	에니어그램기본/심화 자격취득
스포츠마사지1급	정성호	월·목 19:00~22:00	4	30	150,000	스포츠마사지1급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지, 평생학습을 위해 꿈과 재능을 살리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KWANGSHI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 자격검증비, 재료비, 교재비는 각 과정마다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수강인원이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각 과정을 이수하시면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수료증을 드립니다.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왕산북로 36 www.kwangshin.ac.kr